곡성군의 특별한 숲 교육 '모두 만족'

5월부터 두달간 제월섬서 7차례 교육 워크숍

'숲 더불어 교육' 학생 · 교직원 · 학부모 호응

곡성군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곡성 제월섬에서 7차례의 숲 교육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

당초 곡성군은 5월부터 워크숍을 시작해 총 6차례 개최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교직원과 학부모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1차례 더 추가하며 총 7차례 개최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원래 계획보다 소규모로 진행했다.

워크숍은 곡성지역 교육지원청 및 유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5차례, 학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2차례 진행됐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숲 더불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교육현장에서 교과활동 및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별 맞춤형 이론 및 현장 강의에 크게 호응했다.

학부모들에게는 '가족 숲탐험대'라는 주제로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 단위 워크숍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숲 속 우리집 만들기, 바이오 블리츠, 자연물 빙고놀이, 자연미술관과 같은 숲 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치근 그림책 작가와 함께 자연물을 이용해 각자의 감수성과 창의력으로 자연미술 작품을 만들어보기도 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해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숲 교육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학부모 A씨는 "식물의 모양새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곤충의 소리를 들으며 점점 숲 활동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자연미술 시간에는 어른들은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자신만의 창작품을 완성시켜 가는 모습이 뿌듯했다."라며 숲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교직원과 학부모가 숲 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학교 교과과정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 꿈놀자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꾸준히 숲 교육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화순군, 주요 시설 '집회 금지 고시'

코로나19 예방 조치

화순군이 최근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주요 시설 일대의 집회·시위 금지를 고시했다.

화순군은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청 · 화순경찰서 · 화순농협 군지부 · 화순군민회관 등 주요 시설 21곳 일대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고시 적용 시기는 1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회 · 시위 금지 고시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군은 최근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와 광주 · 전남 지역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2차 유행 조짐을 보여 집회 금지를 고시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 2차 유행이 우려되고 화순 지역에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 진폐 환자, 고령 환자가 많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집회 금지를 고시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니 군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지리산씨협동조합, 구례에 기초문화예술교육 거점 만든다

문체부 공모 선정 12개소 중 전남에서 유일

구례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공모사업에는 전국 70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1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구례군이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구례군의 사회적 기업인 지리산씨협동조합이 추진한다.

구례군과 지리산씨협동조합은 올해 국비 7천만원을 지원받아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실행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비를 매칭하여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여 2022년까지 구례형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례 자원 및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후 문화예술교육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예술 농업 실시 등 다양한 생태계를 연결하는 접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한다.

이번 공모에서 구례군과 지리산씨협동조합의 역량이 결합된 민 · 관 거버넌스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례군은 풍부한 생태?문화?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례형 평생교육과 마을교육,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연계하고자 구례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 · 관이 거버넌스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지리산씨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2014년 창립 이래 지역 내에서 구례다운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의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문화예술인 등이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멜론마을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할 주민 양성

곡성군이 멜론마을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마을주민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 주민역량 교육을 실시했다.

곡성군은 2018년부터 곡성멜론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 농특산물인 곡성멜론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멜론 수확 체험, 멜론 빙수 만들기 등 멜론마을 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상태다.

또한 곡성읍 대평리 2구에 멜론마을을 조성했고, 조만간 곡성멜론복합체험센터 준공도 앞두고 있다.

멜론마을과 체험센터가 완성되면 내년부터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목표로 현재 운영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1일에는 멜론마을 주민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1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리고 이번에 멜론마을 주민 중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멜론마을만의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단계별 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육성과정을 공유했다.

아울러 향후 멜론마을 체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멜론 체험 · 관광 분야를 활성화해 멜론 주산지로서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한 달간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없는 등굣길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27일 담양중학교를 시작으로 6월 24일 만덕초등학교를 끝으로 6개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 19로 개학의 설렘보다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을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함양에 도움을 줬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보건소, 담양군학교지원센터, 담양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흡연예방, 교통안전, 학업중단 등 담양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망을 더욱 견고하게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생명존중교육,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심리극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